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제1호로 혜택을 받은 백금향씨, 동인천길병원 원 이수창 원장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 ■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1호 백금향씨 “통증없이 걷다니 꿈만 같아요”

본사·동인천길병원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아 동인천길병원(원장 이수창)과 공동으로 펼치는 퇴행성관절염 무료 의료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포항에 사는 백금향씨(84세, 불명 대일현)가 3일 양쪽 무릎 관절수술을 받았다. 진각종 신교도(불정심인당)인 백씨는 현대불교신문 독자인 사위 김대용씨의 주선으로 이병에 제1차로 접수하고 제1호로 수술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날 28일 동인천길병원에 입원해 건강진단을 받고 고혈압을 조정한 뒤, 3일 오전 8시부

터 10시까지 이수창 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 30년전부터 관절염을 앓아온데다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친 백씨는 두 무릎 통증이 심해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최근 수술을 조속히 받으라는 권장이 내려졌던 상태. “백씨는 다리가 0자형태로 현대 다리가 연골이 다 녹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수술결과도 아주 좋구요.” 이수창원장은 첫 수술에 만족했다. 일반 환자와 함께 711호에 입원해있는 백씨는 “그저 고맙습니다”고 거듭 말하며 “수술내내 옴마

니반메춤 진언을 했다”면서 “제대로 걸어나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여성이 주로 앓게되며, 육체노동의 강도가 큰 사람에게 발병률이 높아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걸립니다. 수술비용도 만만치않고 결국은 통증도 심해 고통속에서 생활하게되는 안타까운 병이지요.” 이원장은 퇴행성관절염에는 전문가로 1일 평균 3명을 수술하고 있다. 관절염수술도 과거와는 달리 연골삽입후 20여년은 쾌히 정상인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한다. 수술비용은 평균 1족 무릎에 3~4백만원정도이며, 입원 기간은 2주일 정도이다. (02)722-4162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 원로의장 탄성스님 고승메달 제작격려

조계종 원로의회의 의장 탄성스님(사진 왼쪽)과 범주사 주지 해광스님은 2일 한국조계종사 경산조계장을 방문하고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 제작과정을 둘러보고 격려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한국조계종사가 20세기를 결산하는 문화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과 관련 금오스님 기념메달을 감수하기 위해 방문한 두 스님은 약 2시간 동안 조계종사 주화카드처럼 정직일 처장의 안내로 디자인 조각 인각 입인 등 고승 기념메달 제작 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전 조계종사 금강회 회장 이복희씨(주화카드제작)의 안내로 경산조계장내 단독 건물로 들어선 법당 금강원을 참배했다. 위영란 기자

### 군종감 이치영 법사 입적

육군본부葬 영결식...대전국립묘지 안장

군 포교의 최성봉장이었던 육군 군종감 이치영법사(대령)가 1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 자택에서 파로로 입적했다. 이법사의 영결식은 3일 오전 육군수도통합병원 영결식장에서 육군본부장(장례위원장 육군 중령부사 및 군종참모, 육해공군군종단장 등을 역임, 99년 1월부터 육군의 법사 목사 신부를 대표하는 육군 군종감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며 73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74년부터 중위로 임관, 군포교에 헌신해 왔다. 3군단, 5사단, 수도군단, 국방부 등의 군종법사 및 군종참모, 육해공군군종단장 등을 역임, 99년 1월부터 육군의 법사 목사 신부를 대표하는 육군 군종감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불교개혁 운동 역사 조명”

‘불교근대사 바로알기’ 펴내는 박희승씨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50년대 불교개혁 당시, 나아가 일제강점기 및 근대불교사를 먼저 알아야 했어요. 이를위해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집필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박희승 교육과장이 6년여의 작업 끝에 (가칭) 한국 불교근대사 바로알기(들녘)를 20일경에 펴낼 예정이다. 조선말 1850년부터 일제에 의한 사찰령 공포시기인 1912년까지의 근대불교사를 통해 근세 불교 종단의 성립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이 책은 시기별·주



제8회 초의상 수상 성우 과계사 주지는 10월 29일 대문사에서 열린 제8회 초의상 수상식에 김리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제8회 초의상을 수상했다. 김재경 기자

### 교차로

- 포항시암연 초청법회**  
철웅 대구 과계사 성전암 조실은 11일 오후 7시 포항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포항 불교사암연합회 주최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 회갑기념논총 봉정식**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청교련 회장) 스님은 1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을 거행한다.
- 백두산부대서 법문**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10월31일 육군 21사단 백두부대 도술사(주지법사 이익수)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 제8회 초의상 수상**  
성우 과계사 주지는 10월 29일 대문사에서 열린 제8회 초의상 수상식에 김리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제8회 초의상을 수상했다.
- ‘생활 불교’ 특별법회**  
대호 제주 참선성찰부원 명원선인 회주 스님은 7일 천불연등 공양과 ‘생활속에서 깨닫는 불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 신회사 무설전 상량법회**  
원행 동해 삼화사 주지는 8일 지역기관장과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설전신축 상량법회와 삼동백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했다.
- 뉴욕불자의 방서 공연**  
지법 제주 불광사 주지는 19일 미국 뉴욕시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뉴욕불자의 방 행사에 초청돼 자작곡 부모은중으로 음성공양한다. 21일 귀국.
- 정도시 삼천불 봉불식**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대한불교어린이포교회장)는 13일 오전 11시 창건 11주년 기념 삼천불 봉불식 및 정토사 개산제를 봉행한다.
- 감시로 가족시찰 순례**  
법장 서울 무진법장사 주지는 14일 계룡산 감사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을추억 만들기’ 주제로 가족시찰 순례 기도법회를 갖는다. (02)948-3111
- ‘티벳의 불교문화’ 특강**  
초월 티벳 스님은 19일 오전 11시 대

구 태전동 연흥사, 오후 7시 파공 법당사에서 각각 ‘티벳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특강한다. (053)766-3747

**동국대 법대 후원의 밤**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연경동 동국대 법대 학장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7시 동국대 상록관에서 동국법학 창설 50주년 기념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장예**  
정수현 제주시 선공사신도회장(한라 불교신문 논설위원)은 1일 사회복지법인 훈강에서 위탁운영하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취임했다. (064)732-2353

**日 불교유적서 작품 구상**  
정찬주 소설가는 한·일 고대불교사와 관련된 작품의 취재를 위해 10월 1개월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도쿄 교토 오사카 나라지역의 백제불교 유적지를 답사한다.

**조선대 미술대 학장에**  
고현 조선대 교수(응용미술학부)는 최근 미술대학 학장으로 임명됐다.  
**전통차 맥기팅 방안 논의**  
박종춘 동춘차후원회장(과천서당 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인사동 지리산에서 제1차 총회를 열고 초의선사에서 서암, 응송스님으로 이어지는 전통차의 맥을 잇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불교학자 다무라 교수 동국대에 장서 기증

일본 불교사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다무라 엔초(田村園澄, 82) 일본 규슈대 명예교수가 불교학 관련 개인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한다. 다무라 교수는 최근 자신이 모은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편지를 통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불교사학자 황수영 박사(전 동국대 총장)에게 보냈다. (psdo@buddhapia.com)



이에 따라 동국대는 중앙도서관에 다무라 문고를 만들어 학생과 연구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sdo@buddhapia.com)

###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1999년 12월 18일
- △대상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 △시상내용
  -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전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제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 제 30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선언문

歸依三寶하옵고,

佛祖의 慧命이 이 땅에 전달된 지 1700여 년,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이 장구한 세월동안 民族 精神文化의 바탕이 되어왔으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일구어온 土臺가 되어왔습니다. 高句麗, 百濟, 新羅 시대는 물론이고, 統一新羅와 高麗에 이르기까지 佛敎는 민족의 精神과 物質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國敎의 위치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록 朝鮮祖 500년 동안 抑佛政策으로 인해 접맥기를 맞기도 했지만 불교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民衆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名實相符한 民族宗敎로서의 기능을 다해왔으며, 나라가 危機에 처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護國의 氣概를 만천하에 떨쳐 보였습니다. 개화기에는 민족과 나라의 將來를 慧眼으로 일구었으며, 일제기에는 獨立運動의 先鋒에 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方向과 座標를 提示했습니다.

소남은 매우 오랫동안 우리 종단이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오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종단운영 방안에 대한 苦悶을 해왔습니다. 非合理的인 종단 權力構造를 革新하고, 나아가 紛糾를 終絶시킬 完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構想과 代案을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소남은 우리 조계종단이 모든 舊習과 舊態를 벗고 中興의 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의 權力構造, 즉 宗團運營의 큰 틀을 현 總務院 中心制에서 敎區本寺 中心制로 轉換하는 劃期的 조치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현재의 총무원이 直轄敎區의 分擔金으로만 운영하되, 規模를 大幅 縮小하고 布敎院과 敎育院의 기능을 強化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구본사 중심제로 종단운영의 큰 틀이 정리될 경우 총무원이 현재처럼 肥大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布敎院과 僧伽敎育을 전담하는 敎育院의 역할을 擴大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直營寺刹과 特別分擔金寺刹 制度를 廢止하여 그 사찰의 淨財는 그 지역과 그 지역 불교계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원이 축소되고 그 운영재정이 직할교구의 分擔金으로 充當된다면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사찰제도는 不必要한 제도일 것입니다.

넷째, 종단차원의 附帶事業을 통해 安定的인 宗團運營 財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生水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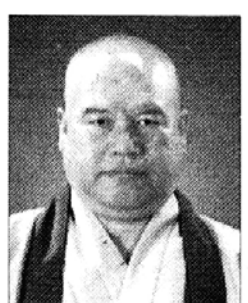
전개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종단의 소속사찰 중 산 좋고 물 좋은 名山大刹이 많습니다. 이 사찰에서 생산되는 淸淨生水를 불자들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을 종단차원에서 전개한다면, 분담금과 특별분담금에 의존해야 하는 궁색한 종단운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수입의 일부를 在家 善信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中央宗會의 기능을 대폭 強化해야 합니다. 중앙총회 의원의 결집을 허용하고, 총무원이 축소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보완할 代替機構로 중앙총회를 내세우야 합니다. 중앙총회에서 바람직한 宗策을 수립하고, 종단 四部大衆의 輿論을 수립하는 장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이 소남이 생각해온 宗團運營의 基本骨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소상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남은 이 어려운 시기에 總務院長이라는 重責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智慧와 德行이 부족하고 다양한 경륜이 부족한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종단의 어른을 恭敬하고 그 분들의 經訓과 經驗을 열린 가슴으로 收容함으로써 補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새로운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宗團의 未來를 先導해갈 指導者는 새로운 人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智慧와 勇氣와 투철한 使命意識으로 현실을 正面突破할 수 있는 政治力 있는 人物이 필요한 時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病廢를 일시에 除去하고 布敎와 修行에 전념하는, 그리고 만 衆生의 歸依處로 거듭나는 宗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남은 감히 그 役割을 自任하고자 합니다. 不足한 識見과 未熟한 意志와 純粹한 愛宗心으로 重要大任을 수행해야겠다는 決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기호 3번 장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